광주 조재관 탁구 '금' 보인다

남자 장애 1등급 단식 결승행
장애 4~5등급 정은창도 합류
김지은 배영 100m 결선 올라

한국 탁구가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확보했다.

남자 장애 4~5등급 단식에 출전한 정은창(39·대전광역시)은 대회 닷새째인 10일 베이징대체육관에서 열린 4강전에서 이집트 선수를 세트스코어 3-1로 꺾어 11일 오전 크리스토프 뒤랑(프랑스)과 금메달을 다툰다.

남자 장애 1등급 단식에 나간 조재관(31·광주광역시) 역시 준결승에서 프랑스 선수를 꺾어 같은 날 안드레아스 베베라(오스트리아)와 결승에서 만난다. 그러나 여덟번째 금메달 획득을 노리던 이해곤(55)은 결승 진출에 실패해 3~4위전으로 밀렸고, 여자 단식의 문성혜와 남자 단식 김경묵도 각각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하는 데 만족했다.

전날 하루에만 금 2, 은메달 1개를 한꺼번에 따낸 사격은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동메달을 땄던 이주희(36·엠씨스퀘어)는 베이징사격장에서 열린 혼성 25m 권총 결선에서 아쉽게 4위에 그쳤다. 본선에서 571점을 쏘아 4위로 결선에 올라갔지만 순위를 뒤집지는 못했다.

남자 50m 소총 3자세에 출전한 심재용(44·인천일반)과 장성원(32·청주시청)은 본선에서 5위와 6위로 각각 결선에 진출했지만 본선 3위와도 11점차가 나 메달을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선은 이날 오후 늦게 치러진다.

여자 수영 배영 100m에 출전한 김지은(25)은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예선에서 1분35초28을 기록, 8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김지은의 기록 역시 3위와 10초 가까이 차이가 나 결승에서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궁에서는 남자 개인의 안성표, 이홍구, 정영주, 안태성이 각각 8강에 진출했다.

한편 여자 조정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1,000m 싱글스컬에 출전한 이종례(46)는 패자부활전에서도 5명 중 4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는데 실패했다. /연합뉴스

패럴림픽 스타는?

스웨덴 사격 야콥슨 통산금 14개 획득
미국 여자 수영 포포비치 6관왕 도전

"올림픽에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있다면 장애인올림픽에는 우리가 있다."

전 세계 148개국에서 4천여명 선수가 참가한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는 베이징올림픽 8관왕 등 올림픽 금메달 14개에 빛나는 펠프스에 견줄 만한 최정상급 선수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어 인간승리의 감동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총잡이' 요나스 야콥슨(43)은 글자 그대로 장애인 사격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대회까지 패럴림픽 사격에서 금메달 13개를 목에 걸었던 야콥슨은 8일 베이징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개인통산 14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지금까지 7개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이날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빛 총성'을 울렸다. 그가 본선과 결선에서 기록한 합계 점수 700.5점은 베이징올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인도 아브히나브 빈드라가 기록한 점수와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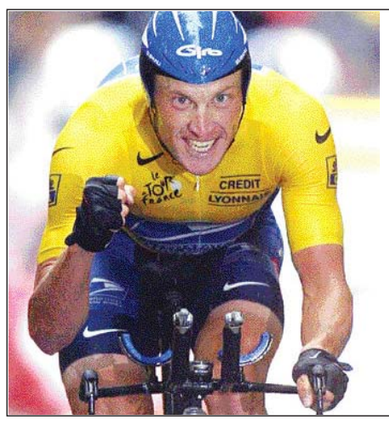
야콥슨은 이번 대회에 4개 종목에 출전하는 만큼 금메달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야콥슨은 "이번까지 8개 대회에 연속해서 참가했는데 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메달 획득보다는 패럴림픽에 계속해서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여자 수영대표인 에린 포포비치 역시 '금메달 제조기'라 불릴 만하다.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무려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한 3개 종목 모두에서 금메달을 거둬들였다.

개인 200m 혼영과 100m 자유형에 이어 100m 배영에서도 1분31초60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는 등 월등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에는 6개 종목에 출전해 6관왕을 노린다. 지난 대회까지 정식 종목이었던 계영이 이번 대회에는 빠지면서 7개의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는 놓쳤다.

베이징올림픽에서 비장애인 선수와 경쟁해 여자 수영 마라톤에서 25명 중 당당히 16위를 차지했던 외다리 여자 수영선수 나탈리 뒤 투아(24·남아프리카공화국)도 금메달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다.

아테네 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뒤 투아는 7일 100m 접영 결승에서 1분06초74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 8일에도 100m 자유형에서도 1분01초44의 패럴림픽 기록으로 우승하며 이미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현역 복귀 선언

고환암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섰던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7·사진)이 은퇴 3년 만에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10일 미국의 잡지 베니티 페어 인터넷판은 암스트롱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도로 사이클 은퇴를 번복하고 내년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목표로 다시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1996년 고환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사이클 경주 '투르 드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7년 연속 우승'하는 위업을 이룬 뒤 2005년 은퇴했다.

문성혜 탁구 결승행 좌절

베이징장애인올림픽 5일째인 10일 베이징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여자단식 F4 준결승 문성혜 대 주잉(중국)의 경기에서 문성혜가 주잉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11일(목)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UAE : 사우디〉(03 : 05·SBS스포츠), 〈스페인 : 아르메니아〉(05 : 30·SBS스포츠), 〈페루 : 아르헨티나〉(11 : 20·SBS스포츠)

▲2008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 : 볼티모어〉(07 : 55·XPORTS)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결승(14 : 00·SBS스포츠)

▲2008 장애인 올림픽(14 : 10·KBS1)

▲2008 프로야구〈한화 : LG〉(18 : 10·SBS스포츠), 〈두산 : 삼성〉(18 : 20·KBS N SPORTS), 〈우리 : 롯데〉(18 : 20·X-PORTS), 〈SK : 기아〉(18 : 30·MBC ESPN)

12일(금)

▲2008 LPGA 벨 마이크로 LPGA 클래식 1R(04 : 30·SBS골프)

전남 드래곤즈 20일 홈경기
최민호·차동민 팬 사인회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0일 광주 상무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유도·사진 왼쪽)와 차동민(태권도·오른쪽)을 초청해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쥐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민호와 차동민은 20일 광양을 찾아 드래곤즈 전용구장 외각에서 팬 사인회를 갖는다.

이들은 또 경기에 앞서 구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시축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포상금 1억원
코칭 스태프에 전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는 포상금 1억원을 자신을 지도해 준 코칭스태프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박태환 아버지 박인호씨는 10일 "수영연맹에서 주기로 한 포상금을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정성껏 지도해 준 코칭스태프에 감사의 뜻으로 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11일 오후 3시30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수영연맹 포상금 전달식에서 곧바로 코칭스태프에 포상금을 전할 계획이다. 1억원 가운데 절반인 5천만원은 노민상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전달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후원사인 수영용품 브랜드 스피도가 꾸린 전담팀 코칭스태프에 주어진다.

박태환은 11일 수영연맹에서 받는 포상금 이외에도 자신이 광고 모델로 나선 업체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낮 1시에는 중구 소공동 롯데시네마에서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올림픽 메달 포상금 8천만원(금메달 5천만원, 은메달 3천만원)을 받은 뒤 팬카페 회원 100여명과 팬미팅을 가질 예정이며다.